경원대학교
KYUNGWON UNIVERSITY

경원 졸전 총감독 : 김용익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미술대학 서양화과
대표전화 : 전자우편 : 웹사이트 *http://cafe.daumnet/KWART*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미술 전문지 편집부
발 신 경원대 졸전 운영위 (손성진 조감독, 반이정 기획자문)
제 목 경원대 미술대학의 '특별한 졸전' Survival Game 개최
날 짜 2004. 1 . 09 . 늦은 5시 (총 2쪽)

보 도 자 료

경원대 미대 서양화과의 '특별한' 졸전 Survival Game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4년 1월 9일 늦은 5시 오프닝 '대안공간 풀'

1. 오는 2004년 1월 9일 늦은 5시 인사동 '대안공간 풀'에서 경원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는 '특별한' 졸전 Survival Game을 개최한다. 오프닝 당일 간단한 학생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고, 행사기간 내내 출품자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free market도 병행할 것이다.

2. 경원대학교 미술대학은 그동안 미술대학의 교육과 졸업전(이하 '졸전') 자체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다. 지난 1999년에는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연례행사인 졸전에 대해 4학년 학생 중 일부의 반대 모임인, 비져스(BIJUS)라는 단체가 결성된 바도 있다. 이들은 전국 미술대학을 투어하며 미술대학 졸전의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인터뷰하는 최초의 졸전 투어 전을 벌인 바 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저항 아닌 저항'에 경원대 미술대학은 전혀 강압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학생들만큼이나 현재 미술대학의 졸전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고,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음에 공감한 교수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미술제도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대 내부의 사건들이지만, 그것을 간과하기에는 미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한, 의미 있는 시위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3. 비져스 투어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졸전에 문제 제기한 사건이었다면, 경원대 미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미술 교육과 전시 문화의 현주소에 관해 고민한 시도도 있었다. 미술 전시장이라는 울타리, 교수와 학생, 혹은 기성작가와 예비작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2002년 서울 시내 모처 모델 하우스에서 (로얄 패밀리 컴온)전으로 표면화 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졸전' 자체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공식적 미대 졸전'의 자리에서 풀어보자는 취지로 이번 전시가 준비되었다. 우리는 이번 '특별한 졸전 Survival Game'을 통해 소박하나마 전국 미술대학들이 매해 연말 혹은 연초 연례행사로 치러오던 '졸전'의 구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4. 이번 졸전은 여느 미대 졸전과는 달리 '기획 주제'를 갖고 있다.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정해서 출품자들이 주제에 수렴하는 시도인 것이다. 통상 기성전시에서 시도되는 이런 기획전의 개념을 미술대학 졸전에서 시도한다. 이유는 그 기획 주제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번 졸전의 기획 주제는 '서바이벌 게임 Survival Game'이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미대출신으로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미대 졸업생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을 졸전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공동작업도 준비되었고, '미대생으로 살아남기'에 대한 고민을 담은 학생 개개인의 출품작도 준비되었다.

5. 이번 졸전에는 졸업 당사자인 4학년 뿐 아니라, 졸전 운영위에서 선정한 기성 작가 및 평론가 5명이 초대작가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연다. 초대작가와 졸업반 출품자 모두 전시 기간 내내 작품을 판매한다. 이것 역시 미술 전공자의 '힘겨운 생존'에 관한 퍼포먼스이자 시위이다.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6. 졸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경제적 부담은 철저히 지양한다. 겉치레식 오프닝 행사와 뒤풀이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도록 제작비도 최소화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졸전 준비 중 사용된 지출 내역 전모를 행사 오프닝 당일 날 공개할 것이다.

7. 아울러 졸전 기간 중, '졸전과 미술대학 교육'에 관한 소박한 토론회(2004년 1월 16일 토요일)를 마련하고자 한다. 미술평론가 반이정(2004 부산비엔날레 전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자로 최진욱(계원대), 정헌이(한성대), 윤동천(서울대), 배종헌(작가)이 나오며, 그날 참석자들로부터 자유의견도 받는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KWART